■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1-33.
http://doi.org/10.17948/kcs.2019..84.11

【특집1: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2)】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野史叢書의 학술적 가치

정우봉(鄭雨峰)*

목 차

1. 들어가며
2.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野史叢書 학술적 가치
3. 『海東諸家筆談』과 『懲省錄』의 자료적 가치
4. 마무리

국문초록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는 820여 종의 고서, 3200여 건이 넘는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野史叢書를 중심으로 가와이문고 한국 고서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 다루었다. 가와이문고 소장 야사총서는 모두 3종이 있다. 『昭代粹言』, 『鵝洲雜錄』, 『說叢』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說叢』은 국내외 이본이 확인되지 않는 유일본이다. 가와이문고본 『鵝洲雜錄』은 편자인 洪重寅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야사총서뿐만 아니라, 편찬자의 原稿本이 가와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說叢』에서 주목할 사항은 장서인이다. 여기에는 「嘉林白氏之章」, 「永嘉金○信」, 「繡山」의 3顆가 찍혀 있다. '嘉林白氏之章'은 20세기 초 대표적 서적상이었던 白斗鏞(1872-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935)의 장서인이다. 그는 고서 매매 서점과 출판사였던 翰南書林의 주인이었다. 백두용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들이 국내외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고서들은 백두용이 한남서림을 통해 판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고서의 해외 유출의 경과를 추적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장서인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野史叢書, 鵝洲雜錄, 昭代粹言, 說叢, 白斗鏞, 海東諸家筆談, 懲省錄, 筆記, 가와이문고, 河合文庫.

1. 들어가며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는 820여 종의 古書, 3200여 건이 넘는 古文書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野史叢書를 중심으로 가와이문고본 한국 고서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필기잡록들을 모아놓은 대규모의 叢書들이 편찬되었다. 『昭代粹言』을 시작으로 『大東野乘』, 『稗林』, 『大東稗林』, 『鵝洲雜錄』, 『廣史』, 『寒皐館外史』, 『倉可樓外史』 등의 野史叢書들이 활발하게 편찬되었다.[1] 이들 총서들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의 저술들이 혼재되어 있다. 사료에 가까운 黨爭史 자료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編年體 野史, 필기잡록, 개인의 日記, 人物傳, 燕行錄, 樂府, 漢文小說, 詩話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들 저술에 대해 野史叢書로 명명해 왔다.[2]

---

1) 야사총서에 대해서는 일찍이 일제시대 때에 前間恭作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김근수에 의해 야사총서의 목록 정리 및 상호 비교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루어진 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경수, 「조선후기 김려의 야사총서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제119호, 한국사연구회, 2002; 신상필, 「조선조 野史의 전개와 寒皐觀外史의 위상」, 『대동한문학』 제22집, 대동한문학회, 2005; 안대회, 「패림과 조선후기 야사총서의 발달」, 『남명학연구』 제20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5; 「조선후기 야사총서 편찬의 의미와 과정」, 『민족문화』 제15집, 한국고전번역원, 1992; 윤호진, 「패림의 구성과 그 가치」, 『열상고전연구』 제22집, 열상고전연구회, 2005; 정용수, 「한고관외사의 체제와 일실된 작품들의 존재」, 『남명학연구』 제23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7; 정형우, 「창가루외사의 편목」, 『사학회지』 제17집, 연세대 사학연구회, 1971; 허경진, 「창가루외사의 편찬 의도와 내용 대하여」, 『인문과학』 제41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

2) 野史叢書에 수록된 저술들 가운데 野史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지만, 野史에 포함되기 어려운 성격의 저술—시화, 잡록 등—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野史叢書'라는 용어 이외에 '筆記叢書'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야사총서의 성격 및 용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가와이문고 소장 야사총서는 모두 3종이 있다. 『昭代粹言』, 『鵝洲雜錄』, 『說叢』이다. 이들 야사총서의 학술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의 과정에서 서적의 장서인 정보에 유의하도록 한다. 서적의 유통 과정, 특히 한국 고서의 해외 유출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야사총서 이외에 『海東諸家筆談』, 『懲省錄』 등의 저술이 지닌 의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野史叢書 학술적 가치

그동안 학계에 알려진 野史叢書를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番號	叢書名	編者	分量	收錄種數	所藏處
1	昭代粹言	鄭道應	12卷12冊	14	藏書閣 등
2	鵝洲雜錄	洪重寅	107卷47冊		藏書閣 등
3	大東野乘	未詳	72卷72冊	61	奎章閣
4	靑丘稗說	李長載	43冊		成大
5	寒皐觀外史	金鑢	140卷70冊	61	藏書閣, 하버드대
6	倉可樓外史	金鑢	148卷74冊	7	延世大, 高麗大 등
7	大東稗林	沈魯崇	125冊	51	日本 靜嘉堂文庫
8	稗林	未詳	266卷169冊	89	嶺南大
9	廣史	未詳	10集200冊	143	日本 東京大

〈표 1〉 국내외 소장 野史叢書 목록

가와이문고 소장 野史叢書는 모두 3종이 있다. 『昭代粹言』, 『鵝洲雜錄』, 『說叢』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說叢』은 국내외 이본이 확인되지 않는 유일본이다. 가와이문고본 『鵝洲雜錄』은 편자인 洪重寅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야사총서뿐만 아니라, 편찬자의 原稿本이 가와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검토를 요한다.

그리고『說叢』에서 주목할 사항은 장서인이다. 여기에는「嘉林白氏之章」,「永嘉金〇信」,「繡山」의 3顆가 찍혀 있다. '嘉林白氏之章'은 20세기 초 대표적 서적상이었던 白斗鏞(1872-1935)의 장서인이다. 그는 고서 매매 서점과 출판사였던 翰南書林의 주인이었다. 백두용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들이 국내외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고서들은 백두용이 한남서림을 통해 판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고서의 해외 유출의 경과를 추적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소장자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야사총서를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番號	叢書名	編者	分量	收錄種數	所藏處
1	昭代粹言	鄭道應	12冊	14種	가와이문고
2	鵝洲雜錄	洪重寅	29冊	80種 이상	가와이문고
3	說叢	未詳	16冊	18種	가와이문고

〈표 2〉 일본 가와이문고 소장 野史叢書 목록

이 가운데 먼저 국내외 유일본으로 확인되는『說叢』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說叢』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說叢
- 編者 미상
- 筆寫本
-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不分卷16冊 : 四周雙邊 半郭 20.1×13.7㎝, 有界, 10行20字 註雙行 ; 29.2 X 18.7 cm
- 表題 : 說叢
- 卷首題 : 朝野記聞, 東閣雜記, 錦城日記 等
- 書根題 : 朝野記聞, 東閣雜記, 錦城日記 等
- 印 : 嘉林白氏之章
- 소장처 :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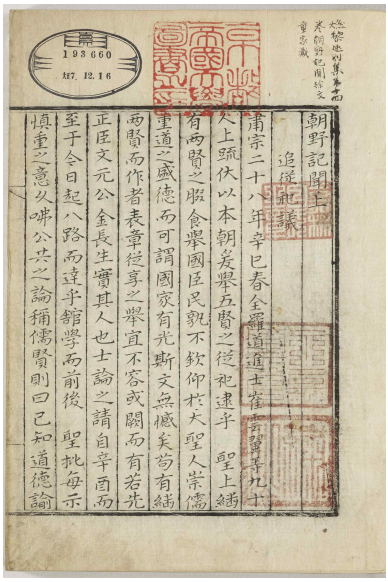
〈가와이문고 소장『說叢』1책 및 16책의 표지〉

『說叢』은 모두 16책이며, 18종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 編者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편찬 시기 또한 정확히 알 수 없다. 가와이문고본『說叢』은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說叢』에 수록된 저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冊1-2 : 朝野記聞 上下
冊3 : 東閣雜記(李廷馨 撰)
冊4 : 錦城日記
冊5 : 野史初本(李植 撰)
冊6 : 經筵日記
冊7 : 癸巳日錄(尹卓然 撰), 涉亂事迹(姜沆 撰)
冊8 : 效顰雜記(高尙顔 撰), 谷雲雜錄(金壽增 撰), 退憂漫錄(金壽興 撰)
冊9-10 : 李相國日記 上下
冊11 : 凝川日錄
冊12 : 瀋館錄
冊13 : 筵中講啓(朴世采 撰)
冊14 : 隨筆錄(朴世采 撰)
冊15 : 正庵雜記(李顯益 撰), 石室語錄(尹宣擧 撰)
冊16 : 三淵雜錄(金昌翕 撰)

위의 저술 가운데 안동김씨 金壽恒系 인물들의 저술—金壽增의 『谷雲雜錄』, 金壽興의 『退憂漫錄』, 『金昌翕의 『三淵雜錄』—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說叢』에서 주목할 사항은 장서인이다. 여기에는 「嘉林白氏之章」, 「永嘉金○信」, 「繡山」의 3顆가 찍혀 있다.





〈『說叢』 수록 『朝野記聞』 上卷 첫 장에 찍혀 있는 장서인 및 '嘉林白氏之章' 확대 부분〉

「嘉林白氏之章」은 20세기 초 대표적 書籍商이었던 白斗鏞의 藏書印이다. 그는 古書 賣買 書店과 出版社였던 翰南書林의 主人이었다. 한남서림은 근대적 형태의 초창기 민간 서점 겸 출판사의 하나였다. 정확한 설립 시기는 모르지만 대략 191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설립되어 1960년대 초까지 존속하였다. 고서적, 고서화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한편, 방각본 소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적들을 간행하였다. 이 서점의 주인이었던 白斗鏞은 화원을 배출한 중인 집안으로, 고서화와 골동품 등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다. 그는 서점 경영 및 출판업 이외에도 여러 사회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그는 근대 서점의 유통 및 출판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었다. 백두용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들이 국내외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 고서들은 백두용이 한남서림을 통해 판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용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도서 가운데 해외에 소장된 것을 몇 가지 들어본다.[3]

제목	편저자	藏書印文	소장처
折花奇談	미상	嘉林白氏之章, 白斗鏞印	동양문고
四溟堂大師集	惟政	嘉林白氏之章, 白斗鏞章, 心齋	동양문고
筆苑雜記	徐居正	嘉林白氏之章, 心齋	동양문고
新增東國輿地勝覽	盧思愼 等	翰南書林	동양문고
記言	許穆	嘉林白氏之章	아사미문고
雲英傳	미상	嘉林白氏之章	아사미문고
海東高僧傳	覺訓	林原君忠敬公東林世孫之章	아사미문고
山林經濟	洪萬選	嘉林白氏之章, 心齋	오사카부립
藥泉年譜	미상	嘉林白氏之章	오사카부립
讀史隨筆	李敏求	嘉林白氏之章	오사카부립
靑丘圖	金正浩	嘉林白氏之章	오사카부립

〈표 3〉 해외 소장 백두용 장서인 날인 도서 목록

서울대 도서관 고문헌실에 소장된 『서적목록』이라는 책자는 한남서림에서 취급했던 도서들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이다. 책이름, 면수, 권수, 그리고 책의 형태 등이 적혀 있다. 당시 한남서림에서 거래되었던 서적의 종류와 성격, 서점의 경영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대략 1400여 종의 도서목록이 수록되어 있다.[4] 이들 도서 가운데 해외로 유출된 것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의 목록에 나오는 도서는 그중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白斗鏞은 「嘉林白氏之章」 이외에 「心齋」, 「林原君忠敬公東林世孫之章」 등의 藏書印을 함께 사용했다. '心齋'는 白頭鏞의 호이며, 장서인으로 많이 사용했던

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결과이다.
4) 이에 대해서는 이민희, 『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역락, 2013. 이 책의 자료편에 한남서림 『서적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嘉林白氏之章'은 백두용의 본관인 林川白氏를 달리 '嘉林白氏'로도 부르는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林原君忠敬公東林世孫之章」 장서인에서 '林原君'은 林原府院君에 봉해진 白仁武를 가리키며, '忠敬公東林'은 東林公派의 派祖인 白地藏을 가리킨다. 白地藏은 高麗末의 문신으로서, 자가 方叔이며, 諡號가 忠敬이다.

한편 白頭鏞의 장서인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永豊社記' 인문이 백두용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嘉林白氏之章」과 함께 찍혀 있는 「永嘉金〇信」, 「繡山」은 누구의 장서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흥미롭게도 大阪府立 中之島圖書館에 소장된 『五山集』과 『魯西先生遺稿』에도 같은 모양의 藏書印이 나란히 찍혀 있다. 同一人의 藏書印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통해 소장자의 정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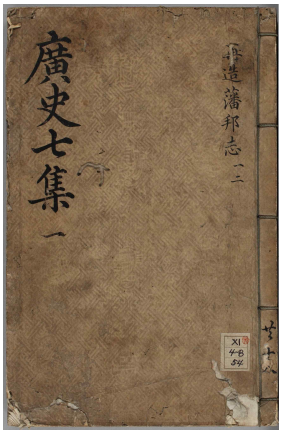
한편 가와이문고에는 『凝川日錄』(1책,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 또한 야사총서 『說叢』의 일부이다. 表題가 '凝川錄七 說叢 七十九'로 되어 있고, 書根題는 '說叢'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앞서 언급한 16冊本 『說叢』과는 또 다른 종류의 『說叢』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100冊에 달하는 큰 규모의 야사총서였는데, 현재는 가와이문고본 『凝川日錄』을 통해 그 편린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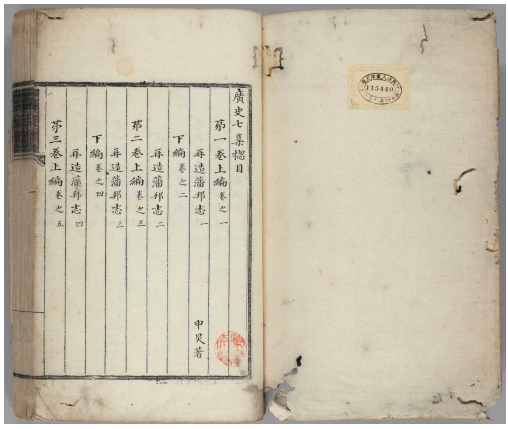
『說叢』과 유사한 제목을 가진 野史叢書로는 『稗林』, 『廣史』, 『說海』, 『彙叢』, 『叢史』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廣史』, 『說海』, 『彙叢』, 『叢史』는 東京大 白山黑水文庫에 소장되었던 이른바 '四叢書'로 불리던 야사총서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關東大地震 때에 燒失되었다. 『廣史』 200책, 『彙叢』 15책, 『說海』 59책, 『叢史』 50책이다.[5] 南滿洲鐵道會社 조사부가 수집한 白山黑水文庫에는 많은 귀중본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關東大地震 때에 거의 소실되었다. 이 文庫는 1909년 이래 南滿洲鐵道會社가 동경제대 교수를 지낸 동양사학자 白鳥庫吉에게 조선과 만주의 역사 조사를 의뢰하여 다년간 조선과 만주 관계 사료를 수집한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고에 소장된 도서들은 東京帝大附屬圖書館으로 이관되었다가 關東大地震 때에 사라졌는데, 여기 소장된 책 중에 '四叢書'가 특히 귀중하였다.

5) 이 총서에 수록된 書目은 일본에서 발행된 『中央史壇』 9권 3호에 실린 '燒失된 貴重書目'에 나와 있다. 「燒失せられたる貴中書目」, 『中央史壇』 第9卷 3號, 國史講習會, 1924.

이 가운데 『廣史』와 『叢史』의 일부가 일본의 여러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동양문고, 천리대도서관, 관서대학 內藤文庫 등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동양문고에는 『廣史』 7집에 수록된 43권 18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 책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冊1-6(卷1-12) : 再造藩邦志 / 申炅 著
冊7(卷13-15) : 白登錄 / 羅萬甲 著
冊8-10(卷16-23) : 尊攘編 / [著者未詳]
冊11-13(卷24-30) : 楓巖輯話 / 柳光翼 著
冊13-14(卷31-33) : 左溪裒談 / [辛敦復 著]
冊14(卷34) : 忠逆辨 / 李敏輔 著
冊14(卷35) : 海東樂府 / 沈光世 著
冊15-16(卷36-39) : 東溪雜錄 / 禹伏龍 著(附 靖陵志略)
冊17(卷40) : 癸未紀事 / [著者未詳]
冊17(卷41) : 畸翁漫筆 / 鄭弘溟 著
冊18(卷42) : 山中獨言 / 申欽 著(附 鷺梁江上錄)
冊18(卷43) : 晴窓軟談 / 申欽 著





〈일본 동양문고 『廣史』 표지와 첫 장〉

前間恭作의 기록에 의하면, 『廣史』를 東京帝大附屬圖書館으로 이관할 때에 7집 20책이 결락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결락된 20책이 일본의 역사학자이

자 교육 관료였던 幣原坦(1870-1953)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복사하여 완질로 만들어 동경제대 도서관으로 이관하였다.[6] 幣原坦이 수집한 한국 고문헌 장서들은 총 175종 570책의 규모인데, 1941년 동양문고에 일괄적으로 기증했으며, 『廣史』 7집 20책 또한 그때 기증되어 동양문고에 소장되게 되었다. 이들 기증본에는 幣原坦이 사용한 장서인 「幣原圖書」, 「幣原坦印」 등이 찍혀 있다. 동양문고본 『廣史』 7집에는 각 책의 첫 장 하단에 「幣原圖書」 장서인이 찍혀 있다. 다만 前間恭作의 기록에는 7집 20책이었다고 하였는데, 현재 동양문고에는 7집 18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밖에 천리대도서관에는 『廣史』 3집에 수록된 李植의 『野史抄本』(19권 5책)이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金根洙의 『野史叢書의 개별적 연구』에 영인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일본 關西大學의 內藤文庫에는 『廣史』 1집에 수록되었던 『春坡堂日月錄』(李星齡 著) 1책과 『廣史』 4집에 수록되었던 『西征錄』(洪翼漢 著) 1권, 『北行錄』(洪翼漢 著) 1권 등 1책이 소장되어 있다. 內藤文庫는 동양사학자였던 內藤湖南과 內藤伯健의 구장서 약 3만 3천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內藤湖南(1866-1934)은 '四叢書'를 수집했던 白鳥庫吉과 함께 동양사학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는 교토대학의 동양사 담당 교수로서, 교토 중국학의 창설자이기도 했다. 또한 관서대학 내등문고에는 일실되었다고 알려진 『叢史』의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尊攘篇』(李縡 著) 4책과 『白登錄』(羅萬甲 著) 1책이 그것이다. 『尊攘篇』(李縡 著)과 『白登錄』(羅萬甲 著) 두 책은 일실된 『廣史』와 『叢史』에만 실려 있는 저술이다.[7]

『鵝洲雜錄』은 洪重寅(1677-1752)이 편찬한 야사총서이다. 洪重寅은 조선후기 명문 가문의 하나였던 豊山洪氏의 후손으로, 자는 亮卿, 호는 花隱이다. 洪重寅은 야사총서 『鵝洲雜錄』 이외에 한국의 詩話書를 모아놓은 『東國詩話彙成』을 편찬하기도 했다. 『東國詩話彙成』는 歷代의 詩話를 두루 섭렵하여 시대와 작가를 기준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구성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8] 『鵝

6) 이에 대해서는 前間恭作, 「野史叢書中 卷帙이 가장 많은 廣史에 대하여」, 『朝鮮之圖書館』 1933年 4卷 4-6號, 朝鮮圖書館研究會, 1935를 참조. 金根洙가 이 글을 번역하여 『野史叢書의 개별적 연구』,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84에 수록하였다.

7) 이에 대해서는 金根洙, 앞의 책에 수록된 「韓國野史叢書所收書目」을 참고했다.

洲雜錄』은 일명 『鵝洲錄』 또는 『庚申日錄』이라고도 한다. 南人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던 1680년(숙종 6)의 庚申大黜陟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서 『庚申日錄』이라고도 불린다. 宣祖 이후의 黨爭에 대한 사실이나 批評 등을 각종 문집과 野史로부터 抄錄한 것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南人의 黨派的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같은 남인계 학자였던 丁若鏞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만 시집 같은 것이야 서둘러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신하가 임금께 올린 上疏文, 碑文, 옛사람들끼리 주고받은 書簡文 등은 모름지기 읽어서 안목을 넓혀야 한다. 또한 『鵝洲雜錄』, 『盤池漫錄』, 『淸野漫輯』 등의 책은 반드시 널리 찾아서 두루두루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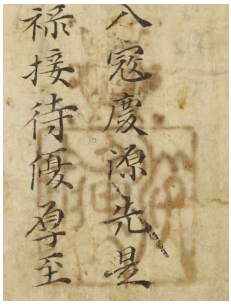
『鵝洲雜錄』은 洪重寅에 의하여 편찬이 이루어진 뒤에 널리 필사되어 유포되었다.

鵝洲雜錄
- 洪重寅(1677-1752) 編
- 필사본
-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영조연간]
- 29冊(零本, 冊30-32缺) : 10-13行字數不定 ; 29.0 X 19.4 cm
- 表題: 鵝洲雜錄
- 識記(第29冊表紙裏面): 洪重寅(1677-1752)號花隱官至都正鵝洲鎭安故名也因名云
- 印:「洪重寅」
-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가와이문고본 『鵝洲雜錄』에는 1책부터 21책까지 장서인 2顆 「豊山」, 「洪重寅」이 찍혀 있다. 鼎形의 籍貫印은 「豊山」인데, 상단에 八卦 鼎을 새겨 도장의 모양이 鼎임을 나타냈다. 正方形의 姓名印은 「洪重寅」으로 판독 가능하다. 이 正方形의 姓名印은 특이한 형태의 글씨체로 새겨져 있는데, 許穆의 眉叟篆의 영향을 받은 印章으로 보인다.

8) 이에 대해서는 권난희, 「홍중인의 동국시화휘성 고찰」, 『남명학연구』 제59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8 참고.





〈가와이문고『鵝洲雜錄』2책의 첫 장과 장서인 확대 부분〉

許穆은 자신만의 독특한 篆書體를 확립했던 인물이며, 洪重寅과 같은 南人系 인물이다. 이 두 개의 장서인은 高麗大 所藏『列聖誌狀通紀』(顯宗實錄字)와『家乘』(筆寫本)에 남아있는 것과 흡사하다. 가와이문고본『鵝洲雜錄』은 장서인 정보를 통해 편자인 洪重寅 자신의 原稿本으로 확인된다.

또한 29책의 표지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묵서되어 있다.

> 洪重寅은 호가 花隱이며, 벼슬이 都正에 이르렀다. 鵝洲는 鎭安의 옛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붙였다고 한다.[洪重寅號花隱官至都正鵝洲鎭安故名也因名云]

『아주잡록』은 현재 적지 않은 異本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야사총서 가운데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조선 후기에 널리 읽혔던 야사총서였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의 대표적인 이본으로 알려진 장서각본과 국회도서관본, 그리고 가와이문고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장서각 소장본(107권 47책)

卷1, 東皐集. 卷2, 南冥集(曺植, 1501-1572). 卷3, 日月錄. 卷4, 栗谷集(李珥, 1536-1584). 卷5-7, 石潭日錄(李珥). 卷8, 昭代粹言. 卷9-11, 癸甲錄. 卷12-14, 己丑錄. 卷15, 牛溪集(成渾, 1535-1598). 卷16, 大庵集. 卷17, 沈漁村行狀(沈彦光, 1487-1540).

卷18-19, 西厓集(柳成龍, 1542-1607). 卷20, 愚得錄, 白沙集(李恒福, 1556-1618). 卷21, 雲巖雜錄(柳西厓) 編. 卷22, 三陵事蹟 附眉叟記言. 卷23, 荷潭日記(李希得, 1525-1604). 卷24, 鶴村雜錄(安縝, 1617-1685). 卷25, 黃芝川行狀(黃廷彧, 1532-1607). 卷26, 吉昌君銀臺日記. 卷27, 接倭歷年考抄選. 卷28, 春官誌. 卷29, 寒岡集(鄭逑, 1543-1620). 卷30, 寄齋雜記. 卷31, 戊戌辨誣錄. 卷32, 駱川尹公丙戌. 卷33, 宗系辨誣. 卷34, 滄浪集. 卷35, 晋興君日記. 卷36, 李承旨日記. 卷37, 菁川旧記. 卷39-40, 重峯集. 卷41, 良賤辨別記. 卷42, 野譚. 卷43, 掛一錄 附晋陽誌. 卷44, 東岡集. 卷45, 童蒙筮告. 卷46-47, 師友淵源錄. 卷48, 退門諸子錄. 卷49, 相臣傳. 卷50, 咸陵君行狀. 卷51-53, 並觀錄. 卷54, 月沙集. 卷55, 愚伏集. 卷56, 晦谷集. 卷57-59, 澤堂集. 卷60, 安牛山遺稿. 卷61, 同春集. 卷62, 隱峯野史別錄. 卷63, 漢陰集. 卷64, 沙溪集. 卷65, 畸菴集. 卷66, 墓堂集. 卷67, 象村集. 卷68, 愼獨齋集 附梧里集. 卷69, 忘憂集. 卷70, 石灘集. 卷71, 銀臺史綱. 卷72, 松窩雜說. 卷73, 尹判書聞韶錄. 卷74, 竹泉日記. 卷75, 西郭雜錄. 卷76, 亂離日記, 江都錄. 卷77-78, 尤菴集. 卷79, 禮訟. 卷80, 孤山集. 卷81, 龍州集. 卷82-84, 魯西集. 卷85, 眉叟集. 卷86, 炭翁集. 卷87, 白湖集. 卷88, 撫松小說. 卷89, 寒曜雜錄. 卷90, 夢藝集. 卷91, 懷尼往復書. 卷92, 明村雜錄. 卷93, 羅金往復書. 卷94, 香洞問答書. 卷95, 三淵集. 卷96-97, 明齋遺稿. 卷98, 崔愼集. 卷99, 明谷集. 卷100, 東平尉公私聞見錄. 卷101, 藥泉集. 卷102, 吳獄顚末. 卷103, 南溪集. 卷104, 西溪集. 卷105, 晦隱集. 卷106, 愚潭集. 卷107, 士大夫可居處.

** 국회도서관 소장본(不分卷 35책)

冊1. 石潭野史 -- 冊2. 東皐集, 栗谷集 -- 冊3-5. 己丑日記 -- 冊6. 己巳日記, 愚潭疏 -- 冊7-9. 癸甲日錄 -- 冊10-11. 野譚 -- 冊12-13. 魯西遺稿. -- 冊14. 東平尉見聞錄 -- 冊15. 亂離日記 -- 冊16. 禮訟 -- 冊17. 李承旨政院日記 -- 冊18. 己巳錄 -- 冊19. 南溪集, 西溪集, 明谷集 -- 冊20. 重峯集 -- 冊21-22. 明齋遺稿 -- 冊23. 白參議遺事 -- 冊24-25. 日月錄草 -- 冊26. 寒岡集 -- 冊27. 尼相與玄石書 -- 冊28. 乙巳書疏 -- 冊29. 竹泉閑話 -- 冊30. 藥泉集 -- 冊31. 己丑記事, 愚得錄 -- 冊32. 牛山文集, 雲岩雜錄 -- 冊33. 吳獄顚末 -- 冊34. 庚申日錄 -- 冊35. 南冥集, 牛溪集, 滄浪集, 畸菴集

** 가와이문고본(29책)

冊1：幷觀錄, 寒臞錄. 冊2：栗谷集(李珥 撰). 冊3：牛溪集(成渾 撰), 滄浪集(成文濬 撰), 荷潭日錄(金時讓 撰), 畸庵集(鄭弘溟 撰). 冊4：眉叟集(許穆 撰), 炭翁集(權諰 撰), 白湖集(尹鑴 撰), 藥泉集(南九萬 撰). 冊5：尹孤山集(尹善道 撰), 朴大庵集(朴惺 撰). 冊6：魯西遺稿(尹宣擧 撰). 冊7：友淵源錄(朴世采 撰). 冊8：明齋集(尹拯 撰). 冊9

: 懷尼往復書, 明村雜錄(羅良佐 撰). 冊10 : 羅金書, 香洞問答書, 崔愼疏. 冊11 : 銀臺史綱(洪憲 撰), 松窩雜錄(李墅 撰), 菁川日記(姜絅 撰). 冊12 : 石潭野史上. 冊13 : 石潭野史下, 禹秋淵癸甲錄. 冊14 : 己丑錄. 冊15 : 掛一錄, 黃芝川事(黃廷彧 撰), 寒岡別集(鄭逑 撰). 冊16 : 雲巖雜錄(柳成龍 撰). 冊17 : 晦隱集, 夢囈集, 東平府見聞錄(鄭載嵩 撰), 安牛山遺稿(安邦俊 撰), 同春集(宋浚吉 撰). 冊18 : 澤堂集(李植 撰), 士大夫可居處, 吳獄顚末, 撫松小說. 冊19 : 寄齋雜記(朴東亮 撰), 澤堂集(李植 撰), 野譚(梅山 撰), 童蒙筮告. 冊20 : 亂離日記, 江都錄, 西郭雜錄, 愚得錄. 冊21 : 晋興君日記, 尤菴別集(宋時烈 撰), 西溪集(朴世堂 撰), 明谷集(崔錫鼎 撰). 冊22 : 己丑記事(安邦俊 撰), 辨誣錄(李玄逸 撰), 宗系辨誣, 秋浦行狀, 南冥集(曹植 撰), 東岡集(金宇顒 撰). 冊23 : 禮訟(掌令許穆疏等). 冊24 : 退門諸子錄 外六件. 冊25 : 重峰集(趙憲 撰). 冊26 : 丁愚潭疏(丁時翰 撰), 龍洲集(趙綱 撰), 二陵事蹟, 澤堂家訓, 竹泉日記, 吉昌君銀臺日記. 冊27 : 李承旨銀臺日記(李德悅 撰), 東皐集(李浚慶 撰). 冊28 : 三淵集(金昌翕 撰), 忘憂集(郭再祐 撰), 石灘集, 接倭歷年表, 月沙戊戌辨誣錄(李廷龜 撰), 尹尙書辨誣錄. 冊29 : 南溪集(朴世采 撰), 掌隷院立案, 隱峯野史別錄(安邦俊 撰).

이본들을 살펴보면, 수록 종수와 분량 등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필사, 유통되는 과정에서 각자의 관심사와 입장에 따라 수록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鵝洲雜錄』의 경우 원편찬자가 처음 편찬했던 원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 정확히 재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많은 이본들 가운데 원본에 가까운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鵝洲雜錄』은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가와이문고 『아주잡록』에는 편찬자 홍중인의 장서인이 분명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아주잡록』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한다.

『昭代粹言』은 鄭道應(1618-1667)이 편찬한 야사총서이다. 鄭道應은 字가 鳳輝, 號가 無忝이며, 本貫은 晋州로 鄭經世의 손자이다. 경상도 상주 지역의 학자 문인으로서, 문집으로 『無忝齋集』이 전한다.[9] 편찬 시기는 미상이다. 17세기에 들어와 叢書 형태로 筆記雜錄類의 저술을 모으는 편찬 형태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始初가 되는 것이 바로 『昭代粹言』이다. 『昭代粹言』은 조선후기 야사총

9) 鄭道應의 문학세계에 대해서는 이구의, 「무첨재 정도응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동방한문학』 제28집, 동방한문학회, 2005 참조.

서 편찬의 시작을 알리는 저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昭代粹言』은 여러 종류의 이본들이 국내외에 전해진다. 그중 일부를 들어 보면, 규장각본(12권 12책), 장서각 A본(12권 12책), 장서각 B본(8권 8책, 缺秩), 고려대 A본(12책, 缺秩), 고려대 B본(3책, 缺秩), 연세대본(5권 5책), 일본 동양문고본(5권 5책, 缺帙),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본(1책) 등이다.

가와이문고본『소대수언』은 15권 12책 완질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본으로 추정된다. 表紙 裡面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묵서되어 있다.

> 鄭道應은 자가 鳳輝이며, 鄭愚伏(鄭經世)의 손자이다. 편찬서로는『昭代粹言』등과『愚伏別集』8권이 있다.['鄭道應, 字鳳輝, 鄭愚伏之孫, 所編有昭代粹言等愚伏別集八卷]

『소대수언』에 수록된 저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卷1-4 : 海東野言(許封 撰)
> 卷5-8 : 石潭遺事(李珥 撰)
> 卷9-10 : 癸甲日錄(禹性傳 撰)
> 卷11-12 : 癸未記事・時政錄(鄭澈家藏)・東閣雜記上(李廷馨 撰)
> 卷13 : 東閣雜記下(李廷馨 撰)
> 卷14 : 鯸鰈瑣語(李濟臣 撰)・芝峰類說(李睟光 撰)
> 卷15 : 荷潭破寂錄(金時讓 撰)

앞서 살핀 洪重寅의『鵝洲雜錄』의 경우에는 이본 간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昭代粹言』의 경우에는 전체 분량, 수록 분량, 종수, 순서 등에서 이본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아주잡록』경우 원편찬자인 홍중인 이후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전사되는 과정에서 수록 저술 간의 출입이 많은 편이다. 필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술은 빼고 다른 저술로 대체해 넣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만큼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자의 개입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는데,『소대수언』의 경우에는 이본 간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3.『海東諸家筆談』과『懲省錄』의 자료적 가치

가와이문고에는 야사총서 이외에 필기잡록 가운데 중요한 저술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필기잡록들을 모아놓은『海東諸家筆談』과 韓弼教의 유배일기『懲省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와이문고본『海東諸家筆談』은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저술이다. 編者 역시 그동안 밝혀져 있지 않았는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朴性陽이 편자이다. 박성양(1809-1890)은 본관은 潘南, 자는 季善, 호는 芸窓으로, 19세기 후반의 학자, 문인이다. 그는 문집『芸窓文集』(15권)을 비롯하여『理學通攷』,『湖洛源流』,『家禮增解補遺』,『居喪雜儀』,『續通鑑』,『國朝記異』등 다양한 저술들을 남겼다. 그의 문집에 보면,「海東筆談後集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가와이문고본『海東諸家筆談』의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다.

> 또한 생각하건대, 우암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봉유설』에서 포폄을 한 것은 매우 공정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책은 패관소설의 부류가 아니고, 사물의 이치를 깊이 궁구하고 밝히는 데에 보탬이 있을 것이다. 이에 정수가 되고 요점이 될 것을 선별하여 3, 4권으로 편찬하였다. 이에 象村, 谿谷, 澤堂, 市南, 西浦, 三淵, 陶谷의 雜說과 漫筆 등을 초출하여 한 질로 만들고『海東筆談後集』이라고 이름 붙였다. 後集이라고 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芝峰 이전을 거슬러 고려말 여러 공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 같이 편찬할 만한 것이 또한 예닐곱 명이 된다. 이것은 마땅히 전집이라고 할 것인데, 궁벽한 마을에 숨어 있어서 수집할 방도가 없다. 이에 아래 부분에 편목만을 열거하였다. 세상에서 옛것을 좋아하고 박학한 선비가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이익재의『역옹패설』, 남추강의『추강냉화』, 이음애의『음애일록』, 김사재의『사재척언』, 이청강의『청강쇄어』, 윤월정의『월정만록』을 차례대로 편집하여 후집 위에다가 편입시킨다면 처음과 끝이 모두 구비가 되어, 全書라고 할만할 것이다.[10]

---

10) 朴性陽,「海東筆談後集序」,『芸窓先生文集』권10, 韓國文集叢刊續 129, 368면. "又按尤翁與或人書, 有曰芝峰類說, 其所褒貶, 甚公且正云云. 然則此非稗官小說之類, 亦可以有補於窮格之一端矣. 玆敢節取其精要者, 編成三四卷, 因又抄出象村・谿谷・澤堂・市南・西浦・三淵・陶谷雜著漫筆等屬, 合爲一秩而題之曰海東筆談後集. 其曰後集者何也? 自芝峰以上溯至麗季諸公, 可以同編於是書者, 亦幾六七家. 此則當爲前集, 而屛伏窮鄉, 收聚無路, 姑此列書其篇目於下段. 世有好古博雅之士, 能成此書則幸矣. 李益齋櫟翁稗說・南秋江冷話・李陰崖目錄・金思齋摭言・李淸江鎖語・尹月汀漫錄, 次第抄輯, 編入於後集之上, 始終該備, 方可謂全書矣."

朴性陽은 芝峰 李睟光, 象村 申欽, 谿谷 張維, 澤堂 李植, 市南 兪棨, 西浦 金萬重, 三淵 金昌翕, 陶谷 李綷의 筆記雜錄 8종을 모아서 『海東筆談後集』을 엮었다고 하였다. 序文이 작성된 것은 1867년이다. 宋近洙의 천거로 1880년 벼슬에 나가기 이전 시기에 이 책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冊名을 '後集'이라고 지은 것은 8종의 필기잡록 이전 시기, 즉 고려 후기로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는 시기의 저술들을 훗날 편찬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海東筆談前集』의 존재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여러 사정상 편찬이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필기잡록은 가와이문고본 『海東諸家筆談』에 수록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가와이문고본 『海東諸家筆談』은 表題와 書根題가 '海東筆談'으로 되어 있는 14卷 4冊의 필사본으로, 『芝峰類說』(李睟光 撰), 『象村雜稿』(申欽 撰), 『谿谷漫筆』(張維 撰), 『澤堂雜稿』(李植 撰), 『市南雜識』(兪棨 撰), 『西浦漫筆』(金萬重 撰), 『三淵雜識』(金昌翕 撰), 『陶谷雜著』(李宜顯 撰) 등 8종의 필기잡록이 수록되어 있다.

또 하나 가와이문고본 『海東諸家筆談』에는 所藏印 정보가 중요하다. 卷首面 하단에 찍혀 있는 장서인을 보면 「潘南朴性陽季善印」으로 되어 있다. 所藏者가 바로 이 책의 編纂者인 朴性陽이다. 요컨대 가와이문고본 『海東諸家筆談』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저술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될 뿐만 아니라, 編者 자신이 소장했던 原稿本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編者의 親筆本일 가능성이 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海東諸家筆談』의 異本으로는 현재 高麗大 六堂文庫에 1종이 전해진다. 가와이문고본과 고려대 소장본을 비교 검토한 결과 수록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한편 가와이문고에는 朴性陽의 藏書印 「潘南朴性陽季善印」이 찍혀 있는 또 다른 저술이 있다. 박성양이 소장하고 있었던 『故事雜錄』(1책, 필사본)에는 『破睡錄』(任天常), 『華海彙編箚錄』(李源順), 『辛壬零言』, 『辛壬事辨正文』(沈象奎), 『江都殉節諸賢』 등 다양한 종류의 筆記雜錄들이 수록되어 있다. 朴性陽이 직접 편찬한 저술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언하기 힘들다. 가와이문고 소장 『고사잡록』은 앞서 본 『해동제가필담』과 함께 필기잡록류의 수집과 정리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박성양의 학적 관심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저술이다.

가와이문고에는 야사총서 이외에 여러 종류의 필기잡록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국내외에 유일본으로 확인되는 것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瀕尾編』, 『桴海錄』, 『補聰, 『海山日記』, 『日錄』, 『隨錄』, 『懲省錄』 등이 주목된다.[11] 그 가운데에 『懲省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懲省錄
- 韓弼教(1807-1878) 著
- 筆寫本
-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철종2(1851)
- 2卷2冊(85張, 91張) : 12行28-30字(字數不定) 註雙行 ; 29.0 X 19.8 cm
- 表題 : 懲省錄 乾, 坤
- 內題 : 懲省錄上編, 懲省錄下編
- 跋 : 上之二年辛亥(1851)暮春霞石道人題于靜觀軒
-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2권 2책의 필사본인 이 책의 저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결과 韓弼教(1807-1878)로 밝혀졌다. 韓弼教는 본관은 淸州, 자는 輔卿, 호는 霞石으로, 19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洪奭周의 사위이다. 1839년에는 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載寧郡守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고, 호조참의와 공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는 평생 자신이 근무했던 관아들을 화공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宿踐諸衙圖』라는 화집이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燕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문집으로 『霞石遺稿』가 延世大에 전하고 있다.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懲省錄』은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신자료이다. 이 책은 1850년 載寧郡守로 있었던 때의 일이 문제가 되어 파직된 후 충청도 文義縣으로 유배를 갔을 때에 쓴 일기이다. 1년간의 유배 생활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아들 韓章錫이 쓴 「韓弼教墓表」에는 "御使가 要路에

11) 이 가운데 옥국재 이운영의 『영미편』에 대해서는 학계에 소개되었다. 신현웅, 「옥국재 영미편의 자료적 특징과 가치」, 『한국한문학연구』 제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있던 자의 뜻을 맞추려고 載寧에 在任하고 있던 때의 일로 誣告하여 귀양을 가게 되었으며, 한참 후에 조정에서 府君의 관리로서의 재능을 참작하여 누차 起用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황해도 암행어사 申錫禧의 彈劾을 받고 유배를 떠나는 날부터 기록을 시작하여 해배되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일상, 견문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인근의 山川 景勝을 유람하기도 하고, 서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場市를 구경하기도 하고 문인들과 교유를 하기도 하는 등 유배 기간 중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충실하게 기록하였다. 특히 그는 자신이 견문했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 예컨대 李賢輔의 「漁父歌」를 문집에서 열람한 다음 그 「漁父歌」 작품 내용을 옮겨 놓았으며, 淸州의 吏房에게서 빌려 온 『淸州邑誌』의 주요 내용을 베껴 놓기도 하였고, 事蹟碑의 碑文 내용을 옮겨 적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妓生, 女人과 관련된 일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奇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특히 주목을 끈다. 이에 따라 『懲省錄』은 한필교라는 한 개인의 삶과 사유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무렵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12]

4. 마무리

가와이문고는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 사후 1년 뒤인 1919년, 교토대학 도서관에서 당시 문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의 주선으로 가와이 박사의 유족에게 793종 2,160책을 매입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가와이 히로타미와 이마니시 류는 당시 대표적인 조선사학자이자 장서가로 1900년대 초에 조선에서 활동하며 한국고문헌을 수집하였다. 일본에 귀국한 뒤에도 인연을 이어나가 가와이 히로타미 사후에 이마니시 류의 주선으로 교토대학 도서관에서 가와이의 장서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에는 고서 약 820여 종, 고문서 약 3,200여 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일본 내 한국 고서 소장 기관 가운데 그 양이 매우 많은

12)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편이며, 고문서의 경우 양적 질적 측면에서 자료 수준과 가치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상에서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야사총서 및 『海東諸家筆談』과 『懲省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야사총서 3종—『昭代粹言』, 『鵝洲雜錄』, 『說叢』—가운데 『說叢』은 국내외 異本이 확인되지 않는 유일본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또한 이 총서는 20세기 초 대표적 서적상이었던 白斗鏞의 장서였는데, 한남서림을 통해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 고서가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鵝洲雜錄』은 편자인 洪重寅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 원편찬자의 수택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며, 『昭代粹言』은 15권 12책 완질본이다.

『海東諸家筆談』은 19세기 후반의 문인 학자였던 朴性陽이 李睟光 등을 비롯한 8명의 필기잡록류의 저술을 모아놓은 것이다. 編者 자신의 原稿本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으며, 高麗大에 이본이 1종 더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그밖에 가와이문고에는 국내외에 유일본으로 확인되는 필기들도 상당수 소장되어 있다. 예컨대 『瀨尾編』, 『桴海錄』, 『補聰, 『海山日記』, 『日錄』, 『隨錄』, 『懲省錄』 등이 주목된다. 이들 가운데에서 韓弼敎(1807-1878)의 유배일기인 『懲省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 참고문헌

『說叢』,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
『稗林』, 탐구당 영인본, 1969.
朴性陽, 『芸窓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續 129.
_____, 『海東諸家筆談』, 고려대 六堂文庫.
鄭道應, 『昭代粹言』,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
_____, 『昭代粹言』, 고려대.
_____, 『昭代粹言』, 규장각.
_____, 『昭代粹言』, 일본 동양문고.
_____, 『昭代粹言』, 장서각.
洪重寅, 『鵝洲雜錄』,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
_____, 『鵝洲雜錄』, 국회도서관.
_____, 『鵝洲雜錄』, 장서각.
韓弼教, 『懲省錄』,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

金 鑢, 『倉可樓外史』, 고려대, 연세대 외.
_____, 『寒皐觀外史』, 장서각.
沈魯崇, 『정가당본 大東稗林』(일본 정가당문고 영인본), 국학자료원, 1994.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 史部』, 동국대 출판부, 2018.

권난희, 「홍중인의 동국시화휘성 고찰」, 『남명학연구』 제59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18, 177-205면.
김경수, 「조선후기 김려의 야사총서 편찬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제119호, 한국사연구회, 2002, 119-148면.
김근수, 『야사총서의 종합적 연구』,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6.
_____, 『야사총서의 개별적 연구』,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84.
김상조, 「중국의 필기 연구 동향」, 『대동한문학』 제12집, 대동한문학회, 2000, 79-94면.
김영진, 「조선 후기 실학파의 총서 편찬과 그 의미 : 삼한총서·소화총서를 중심으로」,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김준형, 「조선전기 필기·패설의 전개양상」, 『새민족문학사강좌』, 창비, 2009.
소인호, 「선초 잡록의 성행과 전기소설의 변모」, 『고소설연구』 제1집, 한국고소설학회, 1995, 215-234면.
신상필, 「조선조 야사의 전개와 한고관외사의 위상」, 『대동한문학』 제22집, 대동한문학회, 2005, 203-231면.
신현웅, 「옥국재 영미편의 자료적 특징과 가치」, 『한국한문학연구』 제46집, 한국한문학회, 2010, 312-342면.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제2책, 태학사, 2013.
안대회, 「조선후기 야사총서 편찬의 의미와 과정」, 『민족문화』 제15집, 한국고전번역원, 1992,

129-155면.
_____,「패림과 조선후기 야사총서의 발달」,『남명학연구』제20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5, 299-327면.
윤호진,「패림의 구성과 그 가치」,『열상고전연구』제22집, 열상고전연구회, 2005, 211-232면.
이구의,「무첨재 정도응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동방한문학』제28집, 동방한문학회, 2005, 217-250면.
이래종,「선초 필기의 특성에 대한 고찰」,『태동고전연구』제14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97, 39-68면.
이민희,『백두용과 한남서림 연구』, 역락, 2013.
임완혁,「조선전기 필기의 전통과 패설」,『대동한문학』제24집, 대동한문학회, 2006, 69-108면.
정용수,「한고관외사의 체제와 일실된 작품들의 존재」,『남명학연구』제23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7, 391-419면.
정우봉 외,「필기잡록류 조사 연구」(ITKC-2013-RE-02), 한국고전번역원, 2014.
정형우,「창가루외사의 편목」,『사학회지』제17집, 연세대 사학연구회, 1971, 223-226면.
허경진,「창가루외사의 편찬 의도와 내용 대하여」,『인문과학』제41집,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 27-54면.

前間恭作,「野史の叢書中卷秩最も多き廣史 (上)」,『朝鮮之圖書館』第4卷 4號, 1935, 13-29面.
_____,「野史の叢書中卷秩最も多き廣史 (中)」,『朝鮮之圖書館』第4卷 5號, 1935, 10-23面.
_____,「野史の叢書中卷秩最も多き廣史 (下)」,『朝鮮之圖書館』第4卷 6號, 1935, 7-17面.

「해외한국학자료센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kostma.korea.ac.kr/.

【Abstract】

Academic Values of Unofficial History Series Publication in the Kawai Library

Chung, Woo-Bong*

Kawai Library, an attached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Kyoto, Japan, houses 820 kinds of old books and more than 3,200 ancient documents. This paper deals with the material values of Unofficial History Series Publication (野史叢書). There are three kinds of Unofficial History Series Publication, in other words *Seolchong* (說叢), *Ajujablog* (鵝洲雜錄), *Sodaesueon* (昭代粹言). *Seolchong* (說叢) is a new material that is not listed elsewhere. The book is stamped with Baek Doo-yong (白斗鏞). Baek Doo-yong was a famous book trader and publisher in the early 20th century. He sold many books, and Japanese scholars bought books through him. You can see the situation of Korean old books exported to overseas.

Ajujablog (鵝洲雜錄) has his own stamp. This Unofficial History Series Publication was copied by many people, and there are several versions. This made it difficult to estimate which text was close to the original. The information on the dojo in the book can help you to estimate the original. In this sense, *Ajujablog* (鵝洲雜錄)'s academic value in the Kawaii library is high. In addition, I looked at two kinds of writings, in other words *Haedongjegapildam* (海東諸家筆談) and *Jingseonglog* (懲省錄). I hope that more research will be done on the old books of Korea in the Kawaii library.

Keywords: Unofficial History Series Publication, Seolchong, Ajujablog, Sodaesueon, Baek Doo-yong, Haedongjegapildam, Jingseonglog, Kawai Library.

접수일: 2019.06.28.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6.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